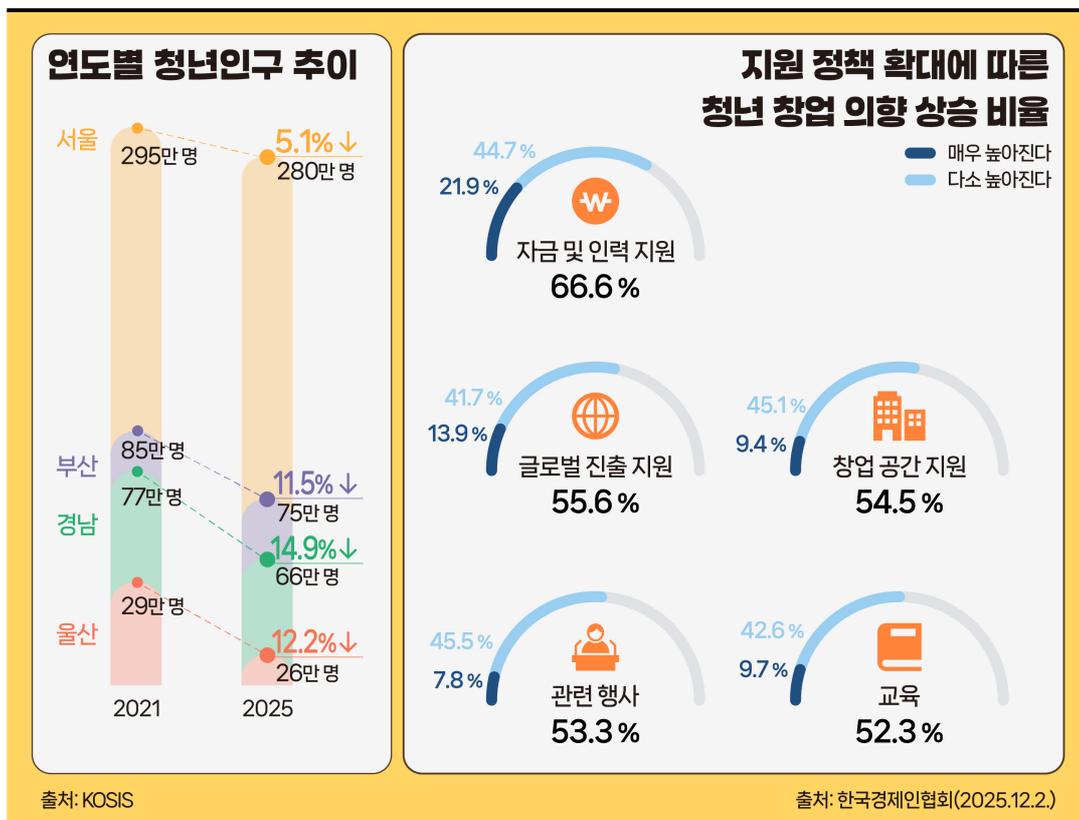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2026. 3. Vol. 43

본 뉴스레터는 부산·울산·경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의정 현안이슈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국회부산도서관의 메일링서비스입니다.

청년창업, 지역 경제의 새로운 씨앗



청년창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입니다. 청년창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혁신 산업 창출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청년 유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1년 대비 2025년 서울의 청년 인구가 5.1% 감소한 반면 부산은 11.5%, 울산은 12.2%, 경남은 14.9%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 청년 인구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1인당 GDP(PPP 기준) 5만 달러 이상 국가 가운데 중장년층(35~64세)의 창업이 청년층(18~34세)보다 많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주요 창업 선도국은 청년 창업의 비율과 규모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5).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창업 인프라 확충과 금융 투자 환경 개선, 지역 산업 강점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창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 지원 정책이 확대될 경우 청년의 창업 의향은 50% 이상 증가하며, 창업 교육은 요식업·소매업 중심의 일반 서비스업보다 지식서비스업이나 IT 기반 산업 등 기술 중심 창업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경제인협회, 2025.12.2.).

3월 <지방의정 뉴스레터>에서는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법령과 자치법규, 지방의회 의정 발언, 국회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개정이유) [시행 2015. 5. 4.] [법률 제13158호, 2015. 2. 3., 일부개정]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의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시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규칙)
- 청년기본법
- 청년기본법 시행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1인창조기업법)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자치법규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관련 조례 더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추천 정책자료]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



(미래의 기회를 열어나가는) 청년창업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최형두의원실, 2023

• 경상북도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경북연구원, 2025

•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2

• 로컬 청년창업 프로젝트 활성화 사례연구

홍지영 외 4인, 2024

[지방의정 말!말!말!]

□ 정채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 행정문화위원회)



“스타트업의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창업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이 세계적인 현실이며, 부산시도 2010년부터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기술창업인큐베이팅, 창업도약패키지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중략)창업투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유망기업 쏠림, 수도권 쏠림도 격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비창업자는 부족한 자본조달 및 담보제공 능력을 가지고 초기 자금을 겨우 확보하여, 정산환급 때까지 유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는 이마저도 어렵습니다.(중략)세계 경제 위기와 내수 경기 침체 속에 창업자들은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창업 전쟁의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창업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안정의 필수요소이며...부산시가 반드시 추진하고 성공시켜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5.06.04.)

□ 홍성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 울주군제2선거구 | 산업건설위원회)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창업을 돕기 위해서 많은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있고요.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이런 조례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토털로 청년에 대한,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케일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괄 조목하게 정리해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만들면 어떻겠냐 싶은데, 청년기업 육성에 청년기업에 우선적으로 물건을 구매해 주라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잖아요.”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15.)

□ 허동원 경상남도의회의원 (국민의힘 | 고성2 | 경제환경위원회)



“지역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대학이 있는 지역만 하고 있죠, 그렇죠? 대학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열정은 지자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창업보육센터가 없는 지자체에도 확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중략)경남의 창업을 열심히 하시지만 수도권으로 창업기업이 몰리고 청년 창업자들이 몰려가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맞는 창업 생태계를 잘 고민하시고 만들어서 경남도에 청년이 머무르고 청년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창업을 해야 청년 창업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성공할 수 있고 지역에 어떤 그런 특성과 문화와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군부 지역이나 청년 창업이 취약한 지역은 별도의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 (2024.11.08.)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4주년 기념 도서관 음악회 행사 개최

국회부산도서관(관장 정미영)은 개관 4주년을 맞아 오는 3월 31일(화) 지역 시민과 유관기관 인사를 초청하여 개관 4주년 기념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이용자와 협력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더불어 다채로운 퓨전 국악 문화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부산 지역 청년 국악팀인 '날라리와 쟁이'가 활기찬 시작 공연 무대를 열며, 드라마 OST와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달'과 오단해 소리꾼이 본 공연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05-608-8022

● 국회부산도서관 기획전시 국회방송 방영



국회부산도서관은 3월 26일(목) 국회방송 「작은 변화 큰 지구」 [9부] '기후, 예술이 되다!' 편을 통해 기획전시 「기후편지 : Climate Letter」를 소개했습니다. 「기후편지」는 예술을 매개로 기후위기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로, 방송에는 박성근 학예사가 출연해 전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정미영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인터뷰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 말까지 운영되며, 오는 7월 말 새로운 기후위기 관련 기획전시를 열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051-608-8101

●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협업 「2026년 책을 넘어 과학 토크」 프로그램 운영

국회부산도서관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협력하여 「2026년 책을 넘어 과학 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과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신 과학기술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강연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조익순 교수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선욱 연구원이 참여해 자율운항 선박이 북극 항로와 해양 환경에 가져올 변화와 기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 문의: 051-608-8102



이번 지방의정 뉴스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지방의정 뉴스레터는 구독자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CLICK



국회부산도서관은 독립된 연구공간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051-608-8150



국회부산도서관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의회정보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정보 북큐레이션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지방의정 뉴스레터 지난호 보기](#)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
4672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161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Tel. 051-608-8072 | nabl_newsletter@nanet.go.kr